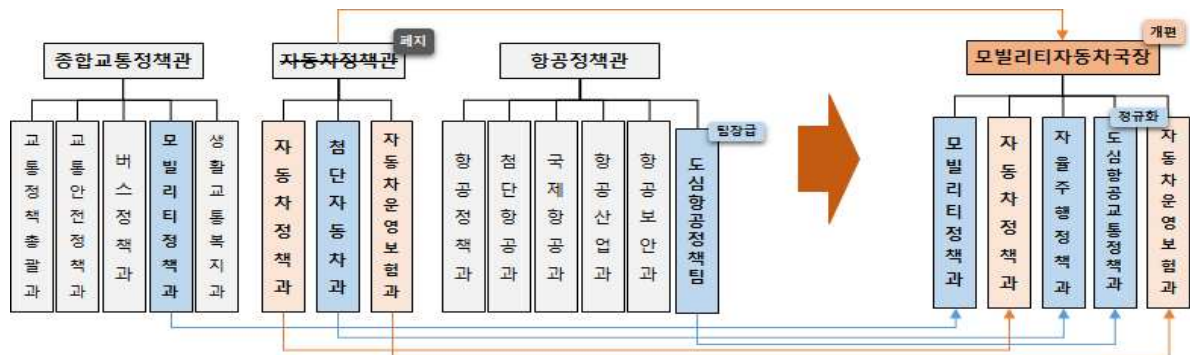


배포 일시	2022. 12. 12.(월)		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	책임자	과장 소성환 (044-201-3123)
	혁신행정담당관실	담당자	서기관 나정재 (044-201-3214)
보도일시	2022년 12월 1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“미래 모빌리티” 시대로 더 가까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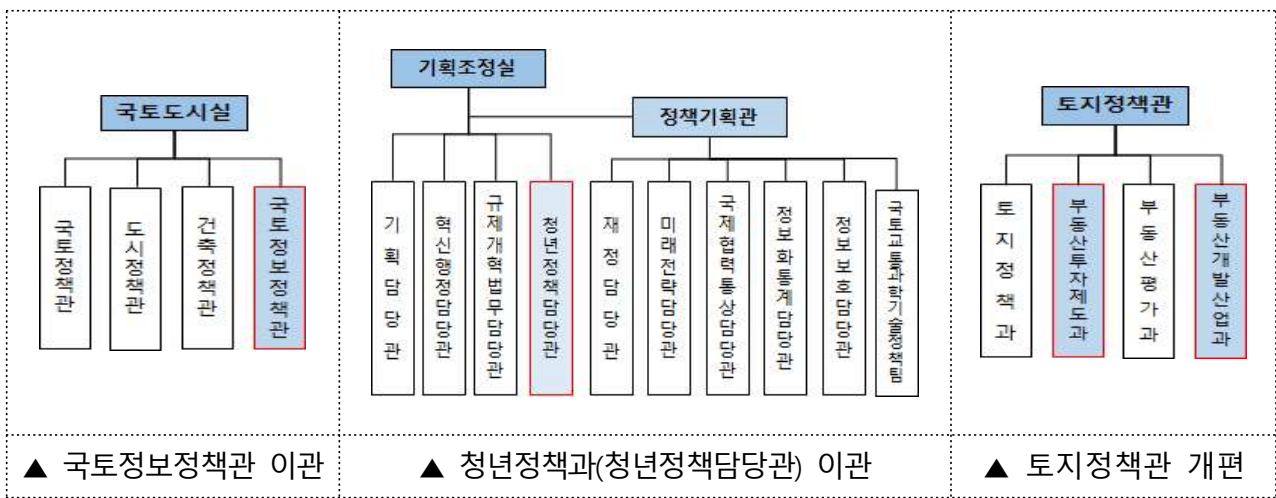
### - 모빌리티자동차국 ·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등 연내 국토부 조직개편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모빌리티 혁신, 디지털국토 전환, 청년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. 국토부는 입법예고,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.
-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①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, ② 국토정보정책관 및 청년정책과 이관, ③ 토지정책관 개편 등이다.
-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.



▲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에 따른 조직 변화도

- 자율차·도심항공교통(UAM)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혁신과 실증·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전담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한다.
  - 그동안 이동수단별로 분절되어 있던 교통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총괄 부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
  - 기존 ‘팀’ 단위 조직이었던 도심항공정책팀을 ‘도심항공교통정책과’로 격상하여, 도심 도로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(UAM)의 `25년 상용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.
- 아울러,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정보정책관과 청년정책과의 소관을 각각 국토도시실과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,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을 개편한다.



- 디지털 트윈 기반의 국토 정책 실현을 위해 현행 주택토지실 산하의 국토정보정책관을 국토도시실로 이관하고, 국토교통분야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·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토지실 산하의 청년정책과를 기획조정실로 이관(‘청년정책담당관’으로 명칭 변경)한다.

-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은 리츠 등 부동산 금융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산업과를 부동산투자제도과로 변경하여 부동산 금융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기존의 부동산개발정책과를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변경하여 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.
- 김홍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“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미래시대를 선도하는 혁신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.” 면서,
  - “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앞당기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